

한국 텔레비전의 근대적 성격, 1956~1979 : 미국화 · 조국근대화 · 유신체제와 대중문화

백 미 숙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텔레비전은 어떻게 현재의 법적, 제도적, 문화적 위치에서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의미망을 만들어 가는 매체가 되었을까? 한국 근현대사의 맥락 안에서 텔레비전을 탐구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질문이다. 서구에서 텔레비전은 라디오가 이미 최첨단의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로서 교육, 문화, 정치 그리고 산업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한 후에 유사한 길을 따라 제도화됐다. 미국은 상업방송 모델을, 영국에서는 공공방송 모델을 각각 자신의 역사적 경로를 거쳐 구축했다. 대부분의 비서구 국가들은 이 두 개의 서구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방하고 혼종화하는 제도화의 과정을 거쳐 텔레비전이라는 문화형식을 만들어갔다.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은 1956년 이승만 정부 하에서 미국식 상업방송국의 외양으로 시작됐다. 미군정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재건 시기를 거쳐 강화된 미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은 한국의 텔레비전에도 그대로 투사됐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은 제3공화국의 모태이자 국영 텔레비전 탄생의 직접적 배경이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탄생했고, 고양된 국민의 정치의식은 법적, 제도적 수준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적·경제적·이념적 수준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전후 강대해진 군부는 이를 반공분단국가의 기저를 흔드는 혼란으로 간주하며 5·16 군사정변으로 현실 정치에 나섰다. 이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최고 통치기구로 하여 군정에 착수했고, 핵심 권력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관료조직을 장악했다. 최고의회 의장 박정희 장군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1963년 12월 27일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3선 개헌과 유신개헌을 거쳐 1979년 10·26으로 저격될 때까지 18년을 통치했다.

이 글은 텔레비전을 이 18년의 현대사 속에서 배치했다. 1961년에 개국한 국영 텔레비전과 이어진 민간 상업 텔레비전의 개국,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는 텔레비전 대중화시대는 군사정변으로 시작된 장기 독재 체제의 규율과 훈육, 계몽과 훈민의 통치 기제와 교차점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후 유신체제(1972~1979)를 구축해가는 통치 경로의 일선에 있던 문화공보부이다. 문화공보부는 문화재 관리와 전통문화유산 보존 등의 전통문화정책뿐 아니라 대중문화와 문예, 영화, 대중음악, 방송 등 미디어 전반에 연계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규모 사업을 기획, 추진했다.¹⁾ 문공부는 이 사업들을 통해 새마을운동과 근검 절약운동을 기치로 내세운 근대화와 ‘발전주의’, 군사문화의 일상화, 학원과 사회의 병영화 등으로 사회적 통제와 감시를 강화한 ‘반공주의’, 역사와 전통의 재구성이나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당화 도구로서

‘민족주의’ 등의 가치를 ‘민족중흥의 사명’을 지닌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유신 총화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로 구축했다.²⁾

이 글은 1956년 최초의 텔레비전 시대로부터 1980년 언론 통폐합 이전까지를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첫째,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HLKZ가 존속했던 이승만 정권 하의 전후 재건 시기, 둘째, 국영 텔레비전이 개국한 5·16 군사정변 시기로부터 TBC, MBC 개국을 중심으로 한 1960년대, 셋째, 둘째 시기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마이크로웨이브 개통으로 텔레비전의 전국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고 수상기 보급이 대중화되던 1966년부터 유신이전 시기, 마지막으로 국민 총화이데올로기 동원과 계몽에 의해 텔레비전에 대한 내용 통제가 극심해지는 한편, 그만큼이나 텔레비전 대중문화의 정체성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던 유신체제 기간으로 구분했다.

1. 전후 재건시기 ‘미국화’(Americanization)와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HLKZ

1) 한국 최초의 한미합작 상업방송국

텔레비전은 3년간의 6·25 전쟁으로 폐쇄화된 한국사회가 한창 재건 복구 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기에 태어났다. 분단된 정전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고 한반도는 이제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국제사회 원조에 의존한 경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국민 1인당 소득은 100달러에 불과한 빈곤의 시기였다. 전쟁과 재건 사업으로 심신이 고달픈 대중은 라디오 연속극에서 억눌렀던 정서적 욕망을 접화하고 위안을 찾았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민을 뺨개치고 달아났던 이승만 정권은 제3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과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었다.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은 1956년 5월 12일 선거를 3일 앞두고 개국했다. 개국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화면에 중계됐다. 개국일 직전에야 방송국 허가가 날 정도로 갑작스럽게 탄생한 이 방송국은 KORCAD(Korea Office of RCA Distributer)-TV라는 이름의 한미합작회사였다. 호출부호를 따라 HLKZ-TV 혹은 소재지명을 따라 ‘종로 테레비’라고 불렸다. RCA 동경유통사 사장 조셉 밀러(사장)와 RCA 한국 측 구매대행자였던 황태영(방송국장)이 합작하여 대통령의 사인 ‘가만(可晩)’을 받아 가까스로 방송국 면허를 받아 개국했다. 텔레비전 방송국의 물적, 인적 토대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기 제조회사 RCA와 연관된 두 사람의 민간 사업자에 의해 미국식 상업방송

이 수입된 것이었다.³⁾ 아직 방송법도 방송정책도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이었다.

KORCAD-TV는 1년 뒤 장기영 한국일보 사장을 대표로 하는 법인으로 소유주가 바뀌어 DTV(대한민간텔레비전방송)로 재탄생했고 본격적인 방송 체제를 갖추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화재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1959년 2월 2일 소실됐다. 이후 한 동안 이 땅에는 1957년 9월 개국한 미군 방송국 AFKN-TV가 유일한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존재했다.⁴⁾

HLKZ-TV는 0.1kW로 송출됐고 서울 도심에서만 시청이 가능했다. 주요 수용자는 300대 정도의 수상기 보유자와 종로를 비롯한 도심 22개 지역에 설치한 가두텔레비전 시청자들이었다. 서울 사람들에게만 접근 가능했던 텔레비전은 서구에서 온 신기한 물품이라는 ‘박래품’으로 인식되었다.⁵⁾ 1959년 초에 이르면,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대수는 공식적으로 3,000여대, 미군 PX를 통해 유통되던 수상기까지 합쳐 비공식적으로는 5,000~7,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전히 극히 일부 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매체였다.

2) 생방송 텔레비전과 미국식 ‘잡종성’

HLKZ-TV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모두 생방송되는 체제였다.⁶⁾ HLKZ은 하루 2시간 주 3회 방송으로 시작해 점차 방송시간을 늘려갔다. 종로 2가 보신각 자리 동일빌딩에 입주해있던 HLKZ-TV는 두 대의 카메라로 스튜디오 촬영을 했고, 때로는 종로 네거리에서 현장촬영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작진들은 종각 옆 수상기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머릿수를 헤아리며 많이 모였을 때는 신나게, 적게 모였을 때는 맥이 풀린 채 방송을 제작했다. 모자라는 편성 프로그램은 외국 대사관에서 무상으로 빌려준 문화영화나 뉴스릴 프로그램으로 채웠다. 생방송 체제이므로 문화영화가 방송되는 동안 스튜디오 세트를 바꾸고 다음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식이었다.

HLKZ는 한미합작회사로 시작한 만큼 미국의 기술적, 문화적 영향 아래 운영되었다. 전후 복구사업이 미국의 원조경제에 크게 의존해있었다면, 사회문화 전반에는 ‘미국의 충격(American Impact)’으로 불릴 만큼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방송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수상기와 장비의 기술은 모두 RCA에서 왔으므로 자연스럽게 미국식 기술과 장비 표준이 도입되었다. 10분 길이의 [리버티 뉴스]나 10~30분짜리 단편영화, 문화영화 등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미 공보원에서 대여해 온 것이었다. 개국 한 해 동안 1,600여편의 미국 필름을 방송했다는 것은 방송이 그것 없이

는 불가능했다는 의미였다. 미국의 각 도시와 자연, 풍토, 미국식 민주주의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문화영화들이 단연 인기가 있었다. 의료, 스포츠, 교육, 클래식과 경음악 등 주제 영역은 전방위적이었다. 또한 공보원 직원이 교사로 출연하는 영어 학습 프로그램도 제작했고, 미8군 음악대가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방송시간을 메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호의로도 간주되어 미군 음악대 프로그램이 정기편성되기도 했다. 제작진들은 미공보원의 지원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한 ‘문화적 냉전’ 정책의 일환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 대안이었고 거부해야 하는 도움도 아니었다.

텔레비전 제작 경험이 전혀 없던 HLKZ-TV의 인적 자원들은 미국인 기술자와 미국 책자로부터 텔레비전을 배웠다.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피디인 최창봉은 미 국무성 연수프로그램으로 6개월간 텔레비전 제작을 교육받고 미국 상업방송의 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그는 빈약한 물적 조건에서 흉내내기도 어려운 미국식 프로그램과 편성을 ‘생략적’으로나마 모방해보고자 했다. 미국은 하나의 국가를 넘어 이상으로서 배워야 할 모델이고 세계였다. TV라는 근대적 테크놀로지를 ‘지역’에서 변형해 생존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은 초기 방송인들의 현장에서의 실천과 ‘쟁이’ 의식이었다. 이로부터 한국 텔레비전은 다시 선진 외국을 모방하고 잡종화하는 진화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었다.

2. 냉전·반공의 산물이자 근대 문화 상징물로서 텔레비전 시대의 시작

1) 국영 ‘서울텔레비전 방송국’(KBS-TV) 개국⁷⁾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8월 14일 ‘TV국 設立計劃受命’(설립계획수명)을 내렸다. 설립 준비팀은 9월부터 구성됐고, 공사는 “10월 10일 갑자기 착공”되었다.⁸⁾ 최고회의는 몇 차례의 계획 변경 명령으로 개국 시기를 크리스마스로 앞당길 것을 독촉했다. 주야로 공사를 계속해 12월 24일에는 시험송출 방송, 그리고 일주일 후인 31일에는 공식 개국 방송을 치렀다.⁹⁾ 그러나 군사작전과 같은 속도전으로도 공사를 마치지 못해 지붕도 없는 건물에서 개국 방송을 했다. 프로그램과 편성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이듬해 1월 15일에야 “임시로 뺄필하다시피 하면서” 하루 몇 시간의 정규편성을 개시할 수 있었다. 국영 텔레비전의 이름은 ‘서울텔레비전 방송국’이었다.

HLKZ-TV 연출과장이었던 최창봉과 제작진들을 주요 인적 구성원으로 하는 ‘TV프로덕션 준비실’이 방송관리국 산하에 설

치된 것은 1961년 10월 23일이었다. 공무원 중심의 국영 라디오와는 달리 민간 방송인들과 영화, 연극, 무대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텔레비전 개국의 중심 인력이 됐다. 그러나 개국 후에 최창봉을 비롯한 민간 방송인들은 일제히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보부가 국영 텔레비전 개국 한 달 여가 지난 1962년 2월 5일 공포한 직제개정령에 의한 결과였다. 직제개정령은 방송전문인이 주축이 되는 ‘제작 중심 체제’를 공무원 중심의 ‘방송 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록 군사정부의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국영 텔레비전이 공무원 직무가 아닌 최소한의 전문성에 기초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었다.

KBS 개국에는 북한과의 TV 방송국 설립 경쟁이라는 배경과 북의 밀사였던 황태성의 간첩자금 22만 달러가 설립자금이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확인되고 있다. 황태성의 자금을 “김일성이를 제일 배가 아프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으며, 최종 결정된 것이 텔레비전 설립이었다는 것이다. 국영 텔레비전의 개국은 냉전과 반공의 현실을 상징했다. 중앙정보부는 5·16 군사정변 이후 월 평균 20명 정도의 간첩 검거 실적을 계속 발표했다. 군사정권은 TV수상기를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하여, 월부로 보급했고, 국영 텔레비전 개국을 국민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다. 국영 텔레비전은 수상기 13,000대, 인구보급율 0.07%로 서울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해서 시작했다.

2) 민간 상업 텔레비전 TBC, MBC의 개국과 3국 시대의 시작

5·16 군사정변이후 방송에 대한 기본 정책을 마련하고 있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초기에 서울에서 허가를 내준 몇 건 외에는 일체의 방송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다. 1963년 1월 5일 박정희 의장이 ‘민간방송을 육성하고 민간공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을 대내외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시정 연설을 하고 나서야 허가가 검토됐다.

MBC 라디오(문화방송)은 민간에서 1962년 5·16 장학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¹⁰⁾ 1968년에서 1971년 사이에 KBS에 버금가는 20개의 라디오 방송망을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무리가 따랐다. MBC 지역방송망의 확장은 서울 본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5·16 장학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주도되어 방송국 설립에 고려되어야 할 지리, 인구, 경제 여건, 문화적 배경 등의 주요 요인이 무시된 채 이루어졌다.¹¹⁾

방송법과 전파관리법이 처음 공포된 것은 1963년 12월 16일이다. 정부의 방송 정책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BC는

1962년 장면 정부 시절 전 국방장관 김용우가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텔레비전 무선국의 가허가를 받았던 데서 시작됐다. 김용우는 당시 신문과 라디오를 준비하고 있던 삼성 이병철에게 합작을 제의했고, 이병철은 럭키의 구인회를 끌어들여 1964년 12월 7일 서울 신세계 백화점 옥상에서 개국했다. 외자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기자재를 수입할 수 없었던 TBC는 국내 무선용 기자재와 중고 부품을 조립하고, 국내제작이 불가능한 일부기자재에 한해서만 5만 달러의 외화 사용 승인을 받아 개국을 할 수 있었다.¹²⁾

서울에서의 개국 방송을 성공적으로 송출한 데 이어 TBC는 12월 12일 부산국을 개국했다. 부산국은 당시 일본의 텔레비전 전파의 월경과 대중문화 침투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문화적인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허가된 것이었다. 아직 마이크로웨이브가 연결되지 않던 시절, 부산국은 서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녹화 테이프로 수송하여 일주일 후에 방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삼성의 자본을 바탕으로 한 TBC는 1963년 설립한 ‘라디오 서울(RSB)’과 합쳐 1965년 ‘중앙방송(JSB)’으로 이름을 바꾸고, 9월에 창간한 중앙일보를 통합해 ‘중앙미디어센터’로 사옥을 이전했다. 국영방송과 이름이 겹친다는 지적에 따라 1966년 동양방송(TBC)으로 다시 명칭을 바꾼 후 삼성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을 상호겸영하는 미디어복합 그룹이 됐다. 신방 겸영은 이미 1964년 동아일보가 동아 라디오 방송을 개국하고, 삼성이 1965년 중앙일보를 창간하면서, 1974년 문화방송이 경향신문을 인수함으로써 국·민영 방송 체제에서 지배적인 허가 정책으로 자리했다. 소유 구조에 대한 정책적 논의나 사회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

MBC-TV는 광고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교육방송으로 허가받았다가 1969년 8월 8일 상업방송국으로 개국했다. MBC-TV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범학교 동창들에게 허가권을 주는 특혜로 탄생했고, 그나마 교육방송 제한도 로비에 의해 곧 해제됐다. TBC의 경우와는 달리 MBC는 개국하면서 대부분의 기자재를 차관으로 들여올 수 있었다. 외자도입의 선례가 되었다. 1969년 1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순사에서 국영 텔레비전의 광고를 없애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5월 1일에 광고방송이 폐지되었다. MBC가 가장 큰 수혜자였다. 텔레비전의 지역방송망 확장도 라디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MBC는 TBC보다 훨씬 뒤늦게 시작했으나 노골적인 정치적 배려와 특혜 속에서 급속도로 전국망을 확산했다. 텔레비전은 서울, 부산에서 3개 방송국이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KBS와 MBC의 경쟁 구도가 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수상기의 보급 확대와 함께 산업으로서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 시장 역시 가파르게 성장해갔다.

3) ‘텔레비전 붐’의 시작 : 상류층의 상징 텔레비전 안테나

KBS-TV의 개국 초기 이름인 ‘서울텔레비전 방송국’이 말해주듯 텔레비전은 서울 사람들의 것이었다. 또한 텔레비전은 1960년대 초중반까지 상류층의 상징이었다. 방송국 설립 공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수상기 보급이었다. 당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태이지만, 대략 서울 시내에 7~8천 대 내외의 TV 세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¹³⁾

공보부는 ‘한국방송문화협회’를 대행으로 내세워 1961년 12월 말까지 1차에 7,599대, 이듬해 2월 2차로 2만여대를 수입했다. 수상기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추첨으로 뽑혀야 겨우 구매할 수 있었다. 2차에서도 경쟁률이 5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최초로 대중적인 텔레비전 붐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어진 줄이 시내 두 곳에서 노도와 같은 인파를 이루어놓았다 하나는 ‘대가리싸움’을 하며 엄청난 장사진을 이룬 TV수상기 월부공급 신청의 인파와 또 하나는 원서 마감날 저마다 접수구 창을 바라보고 …(중략) … 최고 25만 6천 9백 환에 이르는 아르시에이[RCA] 23인치에서 최저 12만 8천 8백 환까지 열 가지 형을 갖춘 이번 월부 텔레비는 1차 때와 달리 웨스팅하우스, 아르시에이 등 미제가 끼어있는 것이 특색 …… 가 장싼 도시마 14인치짜리는 계약금 2만8천 8백 환만 내면 한 달에 만 환씩 부어가게 되므로 웬만한 가정에서 구미를 돋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¹⁴⁾

월부 판매 텔레비전을 사려고 신청서를 들고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신문언론은 ‘무분별한 광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도시 대중들의 ‘문화적 흥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지붕에 높이 매달려 있는 안테나는 상류층의 상징이자 ‘호화로운’ 문화시설, 줌도독을 끌어들이는 불안한 재산으로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주류문화 편입을 위한 텔레비전 구독을 더욱 자극한 동기는 집안의 자녀였다. 이미 1960년대 중반 텔레비전이 없는 가정의 어린이들은 부모를 경멸한다고 표현될 정도로 TV는 좋은 집안을 위한 필수품이자 근대적인 문화시설의 상징물로 욕망되었다.¹⁵⁾

그러나 텔레비전 수상기는 희소한 매체였다. 1950년대 보였던 가두 텔레비전 시청형태는 이제 전파상이나 다방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집단적으로 시청하거나 특정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 공공으로 시청하는 양식으로 나타났다.

레슬링 시합이 벌어지는 날이면 만화가계와 다방에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려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입장료

를 받고 운영하는 사설 텔레비전 관람소도 나타났다. 1964년 가정집 2층의 사설관람소에서는 청소년 1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일전 프로레슬링 시청을 위해 입장한 60여명의 관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2층 마루가 내려앉은 것이었다.¹⁶⁾

다방들은 ‘오늘 김일 레슬링’이란 간판을 세워놓고 손님을 끌었고, 만화가계는 꼬마 만화 손님들을 내보낸 뒤 다시 TV 손님을 받았다. 김일 전수는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00달러에 불과했던 당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준 스포츠 영웅이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이나 1969년 아폴로 달 착륙 중계방송 같은 대형 텔레비전 이벤트도 붐을 촉진했다. KBS가 1969년 7월 21일 아폴로 11호 달 착륙 특집중계 방송을 하는 날, 초저녁부터 대부분의 상가가 조기 철시했고, 생방송을 보기 위해 전파상, 다방, 다과점 등 텔레비전이 있는 곳마다 때 아닌 성시를 이루었다. 다음 날 미국 공보원은 남산 야외음악당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아폴로 달 착륙을 재생 방영했다. 음악당에 오르는 남산 길에 오후 6시부터 인파가 몰려들었고, 9시경에는 스크린을 볼 수 있는 광장과 언덕에 사람이 가득했다. 신문은 십만 명에 이르는 ‘아폴로 시민’이 가랑비가 내리는 남산으로 몰려들었다고 보도했다.¹⁷⁾

4) 생방송 제작 체제에서 주간 연속극과 반공극의 인기

무리하게 개국을 밀어부친 탓으로 국영 텔레비전은 조직이 체정비되지 못한 채 인적, 물적 자원 부족을 겪었다.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당연했다. 기본 프로그램과 편성은 HLKZ-TV와 유사했고 미국 공보원 문화영화, 미국 수입 상업 외화, 국산영화의 의존도가 높았다.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라디오 포맷을 모방한 오락 쇼 정도와 [금요무대], [금요극장]과 같은 주간 단막극이 편성되는 정도일 뿐이었다. 최초의 자체제작 드라마는 반공물 성격의 무대 연극인 [나도 인간이 되련다](자체제작 유치진 작, 이기하 연출)를 30분 길이 TV드라마로 만들어 [금요무대]에서 방송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불규칙한 편성과 프로그램 빈곤으로 AFKN-TV를 본다는 ‘엘리트’ 시청자가 더 많은 형편이었다.

TBC 개국은 국영 텔레비전의 안일함에 자극을 주었고 경쟁을 촉발했다. TBC는 상업방송을 내세우며 주간 연속 드라마와 [쇼쇼쇼]와 같은 버라이어티 쇼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의 전면에 배치했다. TBC는 개국 프로그램으로 일일연속극 [눈이 나리는데](25회 중방)를 시도했고, ‘DTV 지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가장 아름다울 때)라는 연속 주간극을 제작, 방송하며 드라마에 주력했다. 개국 직후부터 라디오 사극으로 이미 성공을 거두

었던 이서구 극본의 [민머느리], [상궁나인], [수청기생], [상감마마 미워요] 같은 야사 멜로 사극은 오랫동안 드라마 편성의 중심으로 자리했다. 유호 극본의 홈멜로드라마 역시 장기 편성되었는데, [가정극장](1965. 4)으로 시작해 [로맨스극장](1966. 5), 마침내 작가의 이름을 붙인 [유호극장](1968. 10)으로 이어졌다. ‘화요드라마’의 타이틀 아래 애정 멜로드라마 역시 중점 편성되었다. TBC는 주간 연속 드라마의 요일별 ‘띠편성’ 체계를 확립해 갔다.

반공과 근대화 홍보는 KBS 드라마와 코미디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였다. [명랑스케치], [10분쇼] 류의 시추에이션 코미디에서도 계몽성이 두드러졌다. 선거 시기에는 대표적인 여당 홍보 프로그램으로 활용됐다. KBS가 초기부터 대중적 성공을 거둔 드라마는 [실화극장]이었다. [실화극장]은 1964년 ‘신금단 부녀 이야기’를 단막극 [아바이 잘가요](1964. 11. 5)로 시작해 월요 주간극 체제를 갖추며 시리즈물로 진화했다. 70년대에는 일일반공극 형식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초기 [8240 KLO] 같은 유격 반공물은 시청률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렸다. [실화극장]은 중앙정보부 심리과장 김동현이 작가로 집필을 했을 뿐 아니라 중앙정보부의 지원으로 풍부한 제작비를 사용하며 유명 영화배우들을 출연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사 내에서도 고참 피디들이 서로 프로그램 연출을 맡으려는 경쟁이 치열했다. 반공 목적극은 텔레비전의 대표적 드라마 장르의 하나로 초기의 스펙터클 스파이물에서 인정주의 심리 간첩 수사극으로, 상업적 요구와 결합해 다양한 변주를 계속해가며 1985년까지 존속했다.

뒤늦게 출발한 MBC는 1969년 일일드라마 [개구리남편]으로 도전했다. 대기업 유부남 과장파 신입 여사원 간의 로맨스가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외압으로 하차한 [개구리남편]은 최초의 불륜 드라마로 기록됐다.

카메라의 수와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초창기 텔레비전의 특징은 ‘생방송’ 제작 체제로 요약될 수 있다. 제작 현장의 소음이나 각종 방송 사고와 연기자, 연출자의 실수도 그대로 방송됐다. TBC는 국내 최초로 녹화기를 도입해 개국 축하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제작했다. 그러나 편집이 되지 않는 녹화기여서 NG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녹화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편집이 자유로운 녹화기가 들어온 1967년 중후반까지 KBS, TBC 두 방송국 모두 실제로는 생방송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초기 텔레비전에서는 연극무대나 국극단의 창극을 스튜디오에서 재현하거나, 외국 단막극 번안이나 연극 대본을 텔레비전용으로 각색해 사용하는 수준에서, 기존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에 의존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일일연속극이 본격화되는 1970년까지 드라마는 단막극 형식에서 점차 주간 연속극이 지배적인 형식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시청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드라마였다.

보도교양 프로그램으로는 1964년 KBS (카메라의 초점), TBC (카메라 눈) 같은 필름롤이 뉴스릴 형태로 초기에 방영됐다면, 1968년부터는 KBS (인간승리), TBC (인간만세) 같은 필름 다큐멘터리가 새마을 홍보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방송됐다. 이들 프로그램은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인간의 발견’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내용적으로는 가난이나 시련이 국가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근면성과 성실성으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론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것은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발전주의’의 근대화를 홍보하는 것이며,¹⁸⁾ 건전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재건운동의 흐름에 있었다.

1960년대는 아직까지 텔레비전이 대중문화로 만개하기 이전의 시기였다. KBS뿐만 아니라 TBC, MBC 두 상업 채널도 아직 텔레비전 고유의 프로그램 양식을 정립하지 못했다. 1968년 이후 녹화 편집기가 제작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던 무렵 이전까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일일극이 다시 실험되기 시작한 것도 1969년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므로 텔레비전은 수입 외화, 해외 스포츠 녹화물, 실황중계방송을 주된 콘텐츠로 하여 1970년대 텔레비전 대중화시대를 준비하는 상태였다.

3. 텔레비전의 전국 네트워크화와 대중화 : 국가 공보와 도시 근대 가정생활

1) 차별적인 방송정책 :

전국 방송망의 확장과 3국 경쟁 시대의 본격화

1969년 상업 MBC 개국으로 국영 KBS와 상업 TBC 등 3개 방송국이 경쟁하는 체계가 본격화되었다. 당시 강력한 야당지였던 동아일보가 소유한 동아방송은 라디오출력 증강 허가를 받기도 어려웠고, 일찍부터 신청했던 텔레비전 면허도 받지 못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라디오방송국으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인허가 정책으로 텔레비전을 통제하고자 했다. KBS와 후발주자 MBC가 1970년대 초반까지 계열사 확장을 통한 전국 방송망을 완성한 것에 비해, TBC는 서울과 부산의 2개 방송국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공보부는 국영 텔레비전 개국 직후부터 텔레비전 방송을 주요 도시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KBS는 1966년에서야 일

본으로부터 TV 중계 장비를 도입하고, 8월 15일을 기해 모든 설치공사를 마침으로써 전국 주요도시에서 KBS 텔레비전 시청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도시 지역방송으로 한정된 형편이었다. 마침내 1967년 12월 21일 마이크로웨이브(M/W) 네트워크가 개통함으로써 전송기술 면에서 일대 혁신을 이루게 됐고 전국 방송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개통된 마이크로웨이브 시설은 주요 도시 간의 시외전화 회선, 전신 회선, 방송 회선 등으로 구성됐는데 라디오 난청지구 해소와 TV 생방송도 가능하게 했다. KBS는 1968년 4월 10일 부산중계소를 설치함으로써 전국 방송망을 완성했다. 그러나 중계방송용은 1회선뿐이어서 KBS만 사용가능했다.

체신부는 1971년 7월 5일에 전 지방을 연결하는 M/W 회선을 구성했다.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MBC였다. MBC는 전국 계열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동시 생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MBC는 이와 거의 동시에 직할 5개 지방국의 영업을권을 양도하고 서울본사 자본금을 10억으로 증자하며 흑자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M/W 망 구축뿐 아니라 방송 송출 출력의 증강도 이어져 KBS는 1971년 12월 산간지역이나 소지역을 제외한 광범위한 지역의 가시청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거주민에게까지 텔레비전 시청의 기회가 제공됐다는 것을 의미했다.¹⁹⁾ 난시청 해소를 위한 중계망의 확장은 주로 KBS에만 해당되는 수혜였다. 정부의 전파관리 정책은 상업방송과의 경쟁에서 KBS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상업방송국의 가시청권 확대는 1970년대 말까지 동결되었다.

M/W 망 완성은 텔레비전 방송이 전국화될 수 있는 기간망이 구축되었다는 중요성뿐 아니라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는 기술적 토대로서도 의미가 컸다. TV 수상기의 보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대중 미디어 이벤트로서 1968년 멕시코올림픽 방송과 1969년 아폴로11호 달 착륙 중계방송도 M/W 망의 구축에 의해 가능했다. 이즈음 서울에서 TV 수상기의 보급률은 공식, 비공식으로 가구당 20~30%에 달했고 매해 10만대의 증가를 보였다.

2) 전자산업 육성정책과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

“짜라리맨까지 호화로운 문화생활의 상징을 장만하려고 야단” 일 정도로 붐이 불었던 KBS 개국 초기의 열기에 비해 1965년까지 TV 수상기 공식 등록대수는 3만여 대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한 기록을 유지했다.²⁰⁾ 그러다가 국산 TV 수상기가 생산 판매되기 시작했던 1966년경부터 ‘제2차 텔레비전 붐’으로 부를만한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공보부 자료에 기록된 1966년 TV 수상기 등록대수는 4만여 대로 나타났고, 이후부터 매해 두 배의 신장률

을 보이며 증가하다 1973년에 100만대를 돌파했다. 여기에는 물론 마이크로웨이브 전국망의 구축으로 주요 도시에서 시청이 가능해졌다는 요인도 배경으로 작용했다.²¹⁾

금성사는 일본의 히타치(日立)사와 기술제휴로 1966년 8월 1일 국내 최초 텔레비전 수상기 VD-191(진공관식 탁상형) 모델을 제조 시판했다. 처음 생산량은 500대였고 가격은 8만 6천원 정도였다.²²⁾ 이 가격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1년 수입에 해당하는 고가였지만, 수요가 매우 높아 공개 추첨으로 판매되었다.²³⁾

70년대 초반까지 국내 TV 공급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군 PX에서 흘러나온 RCA 제품을 암시장에서 구입하는 일이 성행했다. 텔레비전은 사치품이 아닌 근대가정의 필수품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69년 전자산업육성법을 공포하여 TV 수상기 생산을 지원했고, 1972년 1월부터 물품세를 50%에서 35%로 낮추는 조치로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1972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수상기 보급이 증가하는 데는 국내 수상기 제조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작용했다.

국산TV 수상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견인하는 동시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텔레비전 방송망이 전국화되었고, 고향에 라디오·TV 보내기 운동이 조직되어 농어촌에도 TV 보급이 가속화됐다. 정권에게 텔레비전은 새마을운동과 ‘유신’ 정권을 홍보하고 국민을 조국 근대화에 동원하기 위한 도구였다. 정부의 공보 정책은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중심을 이동해갔다. 대중은 월부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구비한 ‘전기화’된 근대 가정에서 안방극장을 시청하기를 욕망했다.

3) 사치품에서 도시 근대 가정생활의 필수품으로

텔레비전은 일반가정에서 가정용 내구재 중에서 가장 먼저 향유할 수 있었던 테크놀로지로지였다. 도시화, 산업화로 핵가족 비율이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상승하면서 텔레비전은 근대 가정의 생활필수품이 됐다. 정부의 전자산업육성에 힘입은 가전업계와 도소매 중계상인들은 ‘계’와 ‘장기 월부’ 등의 다양한 수상기 판매 광고로 구매자들의 소유욕을 자극했다.

1972년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주요 공산품 중 수상기 구입이 전년 대비 50%가 증가해서 내구재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는 1960년 13만대에서 1974년 114만대로 증가한 반면, TV는 1,400여대에서 60만여 대로 증가하여 교육문화 분야에서 3,927%라는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1979년 TV 보급대수는 약 570만대, 전국의 전화 보급대수는 230만대

년도	보급	분포율 (%)					비고
	흑백TV 등록 대수	세대 당 보급률(%) 100가구 당 수상기 대수	서울	지방	도시	농촌	
1956	300	—	100	—	100	—	HLKZ 개국
1959	7,000	—	100	—	100	—	
1961	13,000	0.03	100	—	100	—	KBS 개국
1963	34,774	0.7	100	—	100	—	
1964	32,402	0.6	100	—	100	—	TBC 개국, 녹화기 도입
1965	31,701	0.6	100	—	100	—	
1966	43,634	0.8	100	—	100	—	국내 최초 TV수상기 생산
1967	73,224	1.3	88.8	11.2	100	—	편집 가능한 녹화기 도입 Microwave 전국망 개통
1968	118,262	2.1	75.0	25	100	—	KBS 부산중계소 완성
1969	223,965	3.9	67	33	100	—	표준 녹화기 도입 MBC 개국, (개구리남편)
1970	379,564	6.4	63.7	36.3	94.5	5.5	TBC (아씨)
1971	616,392	10.2	59.7	40.3	92	8	MBC M/W 전국망 연결 윤주영 문공부 장관 담회
1972	905,363	14.7	56.2	43.8	90.1	9.9	KBS (여모) 텔레비전 효자 캠페인 10월 유신
1973	1,282,122	20.7	49.3	51.7	86.7	13.3	MBC (새엄마)
1974	1,618,617	26.0	43.6	56.4	82.5	17.5	난시청해소 사업 새마을TV 사업
1975	2,061,072	30.4	40.3	54.7	77.3	22.7	
1976	2,809,131	41.4	35.3	64.7	71.7	28.3	정책시간대 의무편성 지침
1977	3,804,535	55.7	32.5	67.5	69.7	30.3	
1978	5,135,496	70.7	29.5	70.1	66.6	33.4	
1979	5,696,256	78.5	26.6	73.4	63.3	36.7	

 표1)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률과 분포율²⁴⁾.

로 세대 당 TV 보급률이 전화가입률을 넘어섰다. 1960년대 초반 사치 품목이었던 TV는 이제 일반가구와 다름없는 가정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²⁵⁾

TV는 트랜지스터화와 더불어 점차 외형이 간소화되었고,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1가구 2 텔레비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서울 중심으로 보급되었던 텔레비전은 지방과 농촌으로 확산되어 갔다.

4) 국가 공보와 농어촌에 TV 보내기 캠페인

정부는 농어촌에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70년대 전라북도 김제군 출신 인사들에 의한 ‘내 고향 사랑방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나 ‘효자TV 캠페인’은 관과 결합한 민간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던 사례였다. ‘텔레비전 효자 캠페인’은 장기월부제로 고향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내기 운동으로서 국가의 지원 아래 지역별로 수행된 자발적 수상기 보급운동이었다. 1972년부터 전국적으로 전개됐던 이 캠페인은 농어촌에 14인치 수상기 약 1백만 대 보급을 목표로 했는데 텔레비전 농촌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²⁶⁾ 1973년 (경향신문)은 농촌에 TV 수상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인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전화사업의 확장, TV 중계소 증설로 인한 시청지역의 확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 보도했다. 이 시기 전국의 TV 수상기 보급분포는 도시에 90.7% 농촌에 9.3%이며 가구당 비율은 도시가 4가구당 1대 농촌이 40가구당 1대 꼴이었다. 1975년에 이르러 지방의 TV 보급률은 54.7%, 농촌의 TV 보급률은 22.7%에 달했다.²⁷⁾

또한 정부는 농어촌에 텔레비전을 싼 값으로 대량 보급하기 위해 ‘새마을 TV’ 개발을 지원했다. 상공부는 수입에 의존하던 튜너 등의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여 대당 3만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가격의 새마을 TV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했다.²⁸⁾ 과소비 억제 명분 속에 35%로 유지되고 있는 높은 물품세를 피하기 위해 보급형 텔레비전을 개발하고자 한 것이었다. 당시 신문기사는 “상공부는 1·14 조치의 ‘국민생활안정대책’이라는 정신을 좇아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대중용 TV를 문공부와 협력, 싼값으로 대량 보급키로 방침을 세우고 이의 기업화 계획을 추진 중인 남성공업과 삼양전기공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²⁹⁾ 새마을 TV는 결국 실패했지만 국가가 텔레비전 산업을 지원하고 전자제품의 내수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직접 농어촌에 근대적인 텔레비전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상징하는 정책이었다. 기저에는 KBS와 MBC가 완성한 전국 방송망 체제를 산업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유신의 진원지였던 농어촌에 대한 문화공보 활동에 박차를 기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자리했다. KBS는 1972년 4월 1일 새마을방송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농어촌 새마을운동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매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4. 유신체제와 안방극장 : 근대화, 반공, 민족 총화이데올로기 동원과 대중문화

1) 미디어 복합기업 소유구조와 KBS 공사화의 정치경제학

유신체제 아래 텔레비전의 산업적 특징은 1960년대 이후 형성되어 온 미디어 간 복합 소유구조를 암묵적으로 긍정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이미 1969년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을 소유한 미디어종합기업을 이루었고, 1974년 12월 (주)중앙일보·동양방송으로 발족했다. MBC 역시 합병을 통해 같은 해 11월 (주)문화방송·경향신문을 설립했다. 서울신문도 KBS에 합병됐다. 미디어 복합화 구조는 부실 신문사를 연명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닌 정치적 효과를 위해 선택된 정책이었다. 더욱이 정부는 산업구조보다는 주로 내용 규제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신방 경영 대기업화의 정치적 목적이 여실히 드러났다. 친체제적인 신방 경영 소유구조는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한 정치적 재생산 체계로 기능했다.³⁰⁾

유신체제에서 KBS는 국영에서 공사로 외형적 변화의 전기를 이루었다.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2월 방송법을 개정하고 한국방송공사법을 제정했다. 한국방송공사법은 국영이라는 소유구조와 공무원법 아래에서 부과된 조직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상업방송국과 같은 기업적 활력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의 통제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것이었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 KBS는 편성과 프로그램 제작, 하위직 인사에서의 부분적인 자율성을 획득하여 방송조직으로서의 면모를 확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자, 운영, 예산 등 경영의 중추와 편성 핵심 면에서 여전히 관료적으로 통치되는 조직이었다. 문공부 차관 홍경모가 공사 1~2대 사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통제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사화는 방송조직으로서 KBS가 재원 확대, 조직 효율화, 전문화를 통해서 쇄신되어야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기초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성은 프로그램과 편성에서 반공, 근대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이념적 통제와 유신체제 홍보로 나타났고, 동시에 민간 방송국과의 경쟁으로 상업주의의 극단을 보이는 모순을 드러냈다. 유신체제는 민영상업방송을 포함한 총체적 동원 계획을 꾸미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문공부를 통한 직접적 내용 규제로 추동됐다.

2) 제작환경의 변화와 일일연속극 양산 체제

M/W 망의 구축에 따라 텔레비전이 전국화되고, 국산수상기

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과 거의 시기를 같이하여, 제작현장에는 대략 1967년 6월, 12월을 기해 편집 가능 녹화기가 도입된 데 있다.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표준형 녹화기가 연이어 도입되고 수량이 확보되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양식이 훨씬 자유로워진 것은 1969년 중반 경이었다. 이어 1970년 초반부터 각 방송사는 새로운 기자재와 장비 구입을 확대하고 대형 스튜디오 설치에 박차를 가했다. 촬영 카메라가 2대에서 3~4대로 증가하고 스튜디오 공간 확장에 따른 세트 수 증가, 야외로케 시도 등으로 이야기와 화면 전개가 빨라지고 다양해졌다. 이를 배경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장르화하고 쇼프로그램이 불거리 중심으로 대형화했으며, 특히 주간 연속극에서 일일극 양산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TBC가 개국 드라마로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일일연속극이 부활된 것도 이즈음이었다. KBS는 첫 번째, 두 번째 연속극에 실패한 후, 세 번째 시도한 일일연속극 (행복이라는 것)(1969. 7. 약 30회)이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일일연속극에서 최대 성공을 거둔 것은 TBC였다. 1970년 3월 2일 시작한 TBC (아씨)는 방송 전에 “문단속을 잘해 도둑을 조심하고 수도꼭지가 잠겨 있는지 한번 점검한 뒤에 프로그램을 시청해 달라”는 서울 시경의 안내문구가 표시될 정도의 인기를 누리며 253회라는 방영 회수를 기록했다.

1972년에는 KBS 역시 (여로)로 일일극의 영광을 재현했다. 영화관 관객이 줄어들고 저녁시간에 거리에 사람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로다방, 여로식당도 나타났다. 1972년 8월에 시작한 MBC (새엄마)는 총 411회 방송으로 최장수 일일극을 기록했다. 각 방송사마다 하루에 일일극을 3~4편씩 편성하고 방영 횟수도 길어졌다. 일일연속극의 성공이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과 대중화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주장이 나올 만 했다. 실제 일일극 첫 번째 정점을 이루었던 1972년 중반에 수상기 보급대수가 비공식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다. 일일극의 성공 이후 요일별 연속극과 주말극이 텔레비전 드라마의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최초의 토, 일 연속 주말극은 1976년에 시작한 TBC (결혼행진곡)이었다.

KBS는 일일연속극 인기에 편승해 정권홍보용 목적극을 제작해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1974년 4월 1일부터 총 398회 방송된 KBS (꽃피는 팔도강산)은 막대한 물량과 장비 지원을 받아 근대화와 발전주의 의미 생산의 정치적 기획물이었으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유신체제의 엄혹함 속에서도 텔레비전은 연속극과 화려한 불거리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3) 유신체제의 ‘엄숙주의’와 ‘항락주의’의 전략적 공존 :

방송심의와 건전한 국민 창출

청와대와 문화공보부가 방송 내용에 직접적 통제를 가시화 한 것은 1971년 6월 16일 윤주영 문공부 장관의 기자회견 담화문에서였다. 이미 1월에 최고 통치권자가 혐오감을 드러내며 히피, 장발에 대한 규제를 지시했지만, 담화문은 방송에서 퇴폐풍조와 외래사조를 자숙하고 출연자를 규제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³¹⁾

1972년 10월 유신은 사회 질서는 물론 방송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방송법이 1973년 개정됐고, 방송윤리위원회는 심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방송법은 “윤리 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서 사과, 정정, 해명 또는 취소 등의 조치와 관계자의 출연 정지, 집필 정지 또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제6조 1항)고 명시하여 방송윤리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사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보장되어왔던 방송윤리위원회의 규정과 회칙의 주요 골자를 성문화하며 방송에 대한 문화공보부장관의 감독권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었다.

텔레비전에 대한 강력한 내용 규제는 국가에 충성하는 건전한 국민을 필요로 하는 ‘강성국가’가 채용한 규율 체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일일극 경쟁을 비판하는 신문언론이나 여론을 배경으로 혼인생활과 가정의 순결을 위협하는 불륜, 선정 드라마라는 심의 판정으로 프로그램을 중도 하차시키는 조치가 실행됐다. 히피 사조에 대한 규제를 위해 ‘저속하고 주체성을 해칠 우려가 많은 외국 곡’ 뿐 아니라 외국 팝송이 “지나치게 방송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 공식, 비공식으로 방송국으로 전달됐다. 젊은 방청객들이 연예인을 향해 지르는 기성이나 열광하는 모습도 히피풍의 비속함을 이유로 규제대상으로 만들었다. 외국 가요 원어 가창 규제는 점차 스포츠 용어를 비롯한 모든 방송에서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방송 용어 순화 운동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히피풍과 장발에 대한 통치권자의 개인적 혐오감이 민족 주체성의 확립이라는 정책과 결합하여 문화통제 정책으로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 깊숙이 개입했다. 히피, 장발, 퇴폐풍조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갈망하는 청년 세대의 정신적 공허함을 상징하는 저항으로서 정권이 두려워하는 징후였다. 서구의 개인주의와 대중문화의 침투에 대한 정권의 위기의식의 뿌리는 1970년대 초반부터 목도되는 근대화 프로젝트의 균열의 조짐—선거, 노동쟁의, 데모, 광주대단지 폭동 등의 사회 혼란—에서 나온 것이었다.

엄혹한 규제와 심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은 심각히 반응하지 않았다. 각종 국책성 프로그램이 제작, 편성되는 한편에서는 각종 쇼 프로그램에서 팝송의 원어 가창이나 그에 따른 의

상, 춤 등이 그대로 방송됐다. 방송 제작자들은 주어진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 금지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다.³²⁾ 실제 안방극장에서 어린이 시간대에 법적으로 금지된 일본 만화영화가 편법으로 버젓이 수입, 방송되고 있었고, 외국 수입 만화영화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의 대부분을 차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유신의 엄숙주의는 정책시간대에 새마을운동이나 근대화, 발전, 반공을 주제로 하는 교양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했다.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호는 민족사관 정립극, 목적극, 정책 홍보 드라마 등의 제작 편성으로 전유되었다. 유신의 엄숙주의는 향락주의와 모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향락주의의 숨구멍 위에서 존립하고 기능하고 있었다. 반공, 발전, 민족의 총화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수용하도록 계몽되고 동원되는 ‘건전한 국민’역시도 즐거움과 저항의 욕망을 분출하고 해소해야만 했다. 유신 체제의 엄숙주의는 향락주의의 정치적 얼굴이었다.

4) 반공 민족주의와 만들어진 전통 :

국민교육매체화와 민족사관정립극

문화공보부는 발족과 더불어 ‘문화재개발 5개년계획’, ‘문예진흥5개년계획’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통문화정책을 추진했다. 유신체제의 문화정책은 국난극복(현충사, 칠백의총, 낙성대, 유관순, 강화도), 민족문화의 복원(경주, 추사고택), 충효사상(오죽헌) 등으로 혹은 군사주의 전통(호국 유산의 복원), 영웅사관(이순신, 세종대왕), 국가주의 전통(충효사상의 부활) 등으로 민족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³³⁾ 텔레비전 역시 국민의 정신적 유신 성취를 위해서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1973),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1974)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교시를 따르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역사드라마 편성에서 더 나아가 국민교육매체화 방침에 따라 민족사관정립극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했다. 주제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형식이었다. 규제기구는 역사드라마가 흥미분위의 작품을 지양하고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나 비판, 탄식, 체념을 담지 말 것을 지시했다. [세종대왕](1973), [강감찬](1973), [이율곡](1973) 등이 일일 역사연속극으로 방송됐다. 민족사관정립극으로 [황희 정승](1976), [왕도](1976), [예성강](1976), [사미인곡](1976), [햇불](1976) 등의 대작이 제작 방송됐다.³⁴⁾ 영화에서 민족의 영웅과 모성 민족주의 담론을 담고 있는 (겨레의 꽃 유관순)(1974), [집념](1976), [난중일기](1977), [임진왜란과 계월향](1977), [율곡과 신사임당](1977) 등의 한국적 민주주의의 달성을 선전하는 담론들이 생산되는 것

과 켜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유신체제의 공보정책이 민족과 역사를 호명하는 방식은 대학가와 민중문화운동 진영에서 탈춤부흥운동과 마당극운동으로 전통문화를 재창조하는 방식과 극명히 비교됐다. 정치권력은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전통과 역사를 선택적으로 복원하고 관제화했다. 대학가와 민중운동그룹은 정치적 저항운동과 노동운동을 ‘전통문화의 형식과 내용으로 재창조’하여 갈등 국면을 극명히 드러내고자 했다. 전통문화의 재해석을 통해 화석화된 공연예술이 아니라 저항성과 민중성을 고양하는 민중문화운동으로서 문화투쟁의 주체이자 장을 구축해 낸 것이었다.

KBS (실화극장), TBC (추적), MBC (113수사본부)와 같은 반공 목적극도 텔레비전의 일상성을 구성했다. 반공, 방첩, 정책 홍보, 역사와 전통의 복원 등의 체제 이데올로기는 상업적 요구에 따라 일일극이나 주간극 등 다양한 양식으로 제작됐다. KBS는 [실화극장]이 간첩 일망타진 식의 소탕극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잃게 되자, 반공 일일극을 새로이 편성했다. 1974년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발생 후 바로 [조총련](1974. 9. 3.)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높은 시청률로 대대적 성공을 거두었다. 반공 일일극의 성공은 대중이 반공 정서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새마을운동은 좌담, 보도, 실황중계 등 다양한 형태의 교양 프로그램으로 지원됐다. KBS의 [인간승리], TBC의 [인간만세]는 대표적인 새마을운동 휴먼 다큐멘터리였다. 실황중계방송의 대다수는 각종 정부 인물과 행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보 매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KBS는 필름 다큐멘터리와 교양 프로그램을 대량 제작하여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의 해외 수상 성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양 프로그램은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KBS는 시청자들이 보지 않는 채널이 되었다. 1970년대 유신철권체제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TBC, MBC 드라마와 쇼오락 프로그램이 안방극장에서 대대적 성공을 거두고 있던 것은 모순적인 공존이었다.

5. 나가며

한국의 텔레비전은 준비되지 않은 채 시작하여 서구의 모델을 임의로 차용하고 생략적으로 모방해왔다. 영국, 미국, 독일 등 무선통신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나름대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켰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제도화 이전에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던 가능성들을 이용해 여러 가지 문화적

실천을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방송 기술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의 논의 과정이 있었다.³⁵⁾

한국 방송의 시작을 보면 근대적 사회제도의 도입 과정 일반이 그렇듯이 서구 방송 기술조차 ‘제대로’ 받아들여 정착시키고 운영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공공의 이해를 위해 잘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려의 대상으로 떠오르지도 않았다. 한국 방송의 경우 전쟁과 냉전, 권위주의 국가의 우산 아래 국가의 지원과 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역사는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정치권력의 변화와 연동하여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근대적 성격으로 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의 인허가권이나 산업구조가 정치적 효과에 의해 판단되고, 방송의 역할과 기능은 정부 공보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은 언론통폐합을 거쳐 이른바 공영방송 체제가 만들어진 1980년대에 오히려 더욱 강화된 바 있다. 1987년 방송 민주화 운동 시기를 거치며 방송 역시 정치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단계를 이루었을 뿐이다. 한국의 텔레비전은 외형적 성장의 규모와 달리 이러한 역사적 성격과 구조로부터 아직 그리 멀리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의 방송 역사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성격과 함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숙이 탐구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의미이다.

-
- 공보부가 문화공보부로 개편된 것은 1968년 7월 20일이다. 문공부는 문화재개발5개년계획(1969~1974), 문예진흥5개년계획(1974~1978) 등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유사한 형식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다. 유신체제의 문예진흥예산은 1976년 54억 6천만, 1977년 123억 2천만, 1978년 217억 5천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족사관정립 목적으로 사용한 예산이 1977년 88억 1천만, 1978년 173억 3천만 원이었다는 것을 보면(문화공보부(1979). 『文化公報 30년』) 유신체제가 국민총화이데올로기를 위해 역사와 민족, 전통과 문화를 동원하고 재구축하고 이용하는 데 얼마나 집중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 주창윤(2007). 1974년 전후 한국 당대문화의 지형과 형성과정. 『한국언론학보』, 51권 4호, 5~31쪽.
 - 장영민(2013). 코카드 텔레비전 방송국(KORCAD-TV)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663~690쪽.
 - 강명구 · 백미숙 · 최이숙(2007). 문화적 냉전과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HLKZ.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5~33쪽.
 - 임종수(2007). 텔레비전의 사회문화사.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435~486쪽).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하 이 절의 주요 내용은 백미숙(2011). 1950년대 생방송 텔레비전 HLKZ: 미국화와 잡종화. 『한국방송의 사회문화사: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131~177쪽). 한울아카데미.
 - 이하 이 절의 주요 내용은 백미숙 · 강명구 · 이성민(2008). 서울텔레비전(KBS-TV)의 초기 방송 조직 문화 형성: 구술사를 통한 대안적 방송사 쓰기. 『한국방송학보』, 제22권 6호, 189~229쪽.
 - 開局(개국) 서두르는 「텔레비」放送局(방송국) (1961. 11. 8.). 『동아일보』.
 - 국영TV는 최고회의의 갑작스러운 명령으로 시작됐지만, 이미 예비가 되어있었던 것으로

- 볼 수 있다. 군사정부의 공보부 장관이었던 오재경은 그가 공보실장으로 있던 1958년에 국영 텔레비전 설립계획서를 준비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승인 사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막대한 의화 준비가 문제가 됐고, 재무부 장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다. HLKZ-TV가 3년간 운영되었던 경험으로 인적 자원이 있었고, 준비된 계획서가 있었다는 점에서 초고속의 개국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백미숙 · 강명구 · 이성민(2008). 앞의 글).
- MBC는 ‘부산문화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1959년 최초의 상업라디오 방송국으로 개국했다. 김지태 사장은 이어 1961년 12월 2일 서울에서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 문화방송’을 개국했다.
- 이하 이 절의 주요 내용은 조항제(2003). 1960년대 한국 방송의 자율성. 『한국 방송의 역사와 전망』 (223~253쪽). 한울아카데미.
- 관련위원회(1985). 『중앙일보 · 동양방송 社史(사사)』, 893쪽.
- 開局(개국) 서두르는 「텔레비」放送局(방송국) (1961. 11. 8.). 『동아일보』.
- 人波(인파)……長蛇陣(장사진) (1962. 2. 17.). 『경향신문』; 「TV」六千臺(육천대) 月內入荷(월내입하) 예정 (1961. 12. 24.). 『동아일보』.
- 임종수(2004). 1970~70년대 텔레비전 붐 현상과 텔레비전 도입의 맥락.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79~107쪽; 임종수(2007). 텔레비전의 사회문화사.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435~486쪽). 커뮤니케이션북스.
- ‘텔레비’보던 19명 중경상 (1964. 5. 21.). 『조선일보』.
- 남산TV 인파 10만 (1969. 7. 22.). 『조선일보』.
- 임종수(2011). KBS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역사. 『방송문화연구』, 23권 1호, 109~137쪽.
- 윤상길(2011). 한국 텔레비전 방송 기술의 사회문화사. 한국언론학회 위음. 『한국 텔레비전 방송 50년』 (27~89쪽). 커뮤니케이션북스.
- 테레비즌 붐, 월부매력…태평로 장사진 (1962. 2. 17.). 『조선일보』; 임종수(2007)에서 재인용.
- 윤상길(2011). 앞의 글.
- 전자산업 50년, 새로운 50년(11)~TV 국산화와 가전산업의 태동 (2008. 3. 24.). 『전자신문』.
- 1970년 가구당 평균 지출액이 24,700원이었으니 텔레비전 가격은 무려 3.6배에 해당하는 고가였다(김호경(2010). 『한국TV 수상기 산업의 초기형성과 정부정책: 1960~197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화공보부(1979). 『문화공보 30년』, 215쪽; 한국방송공사(1987). 『한국방송 60년사』, 752쪽; 임종수(2004)에서 재구성.
- 임종수(2004). 앞의 글.
- 임종수(2004). 앞의 글.
- KBS登錄(등록) 전국TV受像機(수상기) 모두 90萬(만)5千(천)3百(백) 대 돌파 (1973. 1. 12.). 『경향신문』.
- 새마을TV開發(개발) 한臺(대)에 三萬(삼만)원線(선) (1973. 6. 1.). 『동아일보』.
- 상공부 대중용TV量産(양산) (1974. 1. 21.). 『매일경제』, 1974년 1 · 14 초치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로서 1973년에 있었던 1차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것이었다. 사치성 재산과 고급 유흥장에 중과세를 부과해 국민생활 안정을 기한다는 조치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에도 중과세가 내려져 수상기 가격부담이 높아져 논란이 됐다.
- 이하 주요 내용은 조항제(2003). 1970년대 한국 텔레비전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 방송의 역사와 전망』 (254~287쪽). 한울아카데미.
- 이하 주요 내용은 백미숙(2011).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교육 계몽적 역할과 내용 규제 의 역사. 한국언론학회 위음. 『한국 텔레비전 방송 50년』 (223~263쪽). 커뮤니케이션북스.
- 백미숙 · 강명구(2007). ‘순결한 가정’과 건전한 성윤리: 텔레비전 성표현 규제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한국방송학보』, 제21권 1호, 138~181쪽.
- 이하 주요 내용은 주창윤(2007). 1975년 전후 한국 당대문화의 지형과 형성과정. 『한국언론학보』, 제51권 4호, 5~31쪽.
- [왕도]에서는 고려말의 국난을 극복하는 인물로 이성계와 이방원을, [예성강]에서는 고려말 중국에서 화약제조법을 들여 온 최무선의 일대기를, [사미인곡]은 조선조 효종 시기 북벌계획을 추진한 훈련대장 이완을, [햇불]은 대원군 때 신병기 제주를 중심으로 외세 침략에 저항하는 선각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주창윤(2007). 앞의 글, 16쪽).
- 강명구 · 백미숙 · 최이숙(2007). 문화적 냉전과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HLKZ. 『한국언론학보』, 제51권 5호, 5~33쪽.